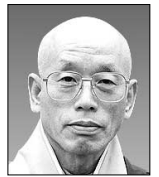


일주문



동국대 경주 정각원 정기법회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은 12월 1일 경주 정각원에서 '현대생활에서 보살 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정기 법회를 개최한다. (054)770-2016



금오중학사회복지관 무료진료
구미 금오중학사회복지관장 박동진 스님은 순천향병원과 공동으로 11월 20일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건강진료와 경로잔치를 실시했다.



동림회 제 7대 회장에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1월 9일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스님들의 모임인 동림회 정기 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 승보회장 새 회장 선출
광주 무각사 주지 평민 스님은 11월 14일 광주지역 조계종 사암 주지스님들의 모임인 승보회 차기 회장으로 재임됐다.



불교대학 학장연설회장
창원 불지사 불지수다라불교대학장 정인 스님은 11월 15일 전국 불교대학 학장연설회장 회의에서 임기 2년의 협회 회장에 재선임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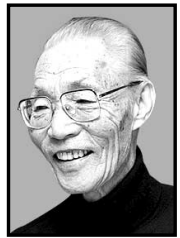
한국종교교육학과 5대 회장에
동국대 불교대 김홍표 교수는 11월 12일 선문대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불청 서울지구 회장 선출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는 11월 16일 제27차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14대 회장에 현일환 씨를 선출했다.

전각가 안광석 씨 별세

전각가 안광석 씨(사진)가 11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경남 김해가 고향인 안광석 씨는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중 한 명인 오세창 선생의 문하에서 글씨문과 전각을 사사했다.
1942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수지하기도 했던 안광석 씨는 <화엄연구>를 비롯해 금석학과 중국 갑골학에도 능통해 <중국 문자의 기원> 등 저서 9권을 남겼다.
또한 <법자 반야심경> <의상대사 창건 심찰고증> 등 9편의 논문을 냈다.



“교육불사로 한국불교 세계화 견인”

경기 화성·美 뉴욕에 정규대학 설립 지광 스님

“능인선원의 국내외 정규대학 설립은 인재를 통한 교육 불사만이 한국불교를 세계 속에 꽃피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대작 불사입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사진)은 11월 15일, 경기도 화성시와 미국 뉴욕주 역시도 인근에 정규 불교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는 능인선원이 설립한 한국불교학원의 ‘능인 국제불교대학원대학(가칭)’이 2008년 개교를 목표로 부지매입과 시설 설계 용역 등을 끝마친 상태. 올해 말 부지사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공식을 치를 계획이다.
“미국에 알려진 한국불교는 흔히 선이나 명상이 대부분입니다. 교학체계를 갖춘 학문적 측면에서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전문 교

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미국 뉴욕주 텍시도 인근의 스티븐 호수가에 2600평 규모의 연구소 건물을 새로 매입했다. 이곳에는 2009년 경 학부과정을 가르치는 ‘세계불교대학(World buddhist college)’이 문을 연다.
지광 스님은 “이미 티베트(와하)이대, 대만(LA서부대), 일본(센프란시스코 불교학 연구소) 등 다른 불교권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미국에 자국의 불교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불교는 이러한 불교교육기관이 없다”며 앞으로 세워질 대학이 한국불교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되기를 서원했다.
경기도 화성에 설립되는 대학원 대학은 분관, 도서관, 수련원, 강 의동, 기숙사, 100만불전 등이 모두 갖춰지면 한국불교문화센터와 능인불교대학을 졸업한 전문 포



교사 양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100만 불전은 태국과 미얀마 등의 백만불사원에서 착안한 것으로 총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대작불사의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지광 스님은 이 같은 계획을 27일 잠실시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25만 능인선원 신도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02)577-5800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조계종 포교대상 동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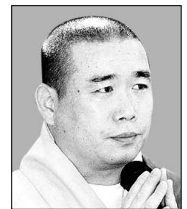
특별상 좋은벗풍경소리·손안식 씨

제 16회 포교대상에 부산 내원정사 조실 동춘 스님(원로의원)이 선정됐다.
포교대상(종정상) 수상자인 동춘 스님은 투명한 재정 운영, 공사가 분명한 사찰 경영, 선원 운영에 필요한 불사 등에 매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호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밤불이와 열쌍이의 효도 툼뽀> 등의 책 60여만부 발행, 전국 초등학교 및 불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군법당에 무료 배포한 공적이 인정됐다.
동춘 스님은 1956년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71년 선암사 봉암사 각좌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밖에 공로상에는 ‘좋은벗풍경소리(화장 성행)’와 ‘손안식(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씨가, 원력상에는 법일 스님(항적사 주지) 배영진(대한불교청년회) 김순경(제 25 교구 봉선사 신도회장) 장현재(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총장) 조흥인(한국운전기



동춘 스님



성행 스님



손안식 씨

사불자연합회) 이차환(포교사단 환경특별위원장) 김윤봉(제 17교구 금산사 신도) 씨 등이, 특별상에는 월우 스님(통도사 아르헨티나 포교당 고려사 주지)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3시 조계사, 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산하학교 전체 발전 노력”

회당학원 새 이사장 휴명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19대 이사장에 휴명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회당학원은 11월 18일 제33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12월 18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진당 정사 후임에 휴명 정사를 선출했다. 휴명정사는 자신의 이사 잔류임기 2년 1개월 동안 회당학원 이사장을 맡는다.
휴명 정사는 1981년 득도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교화활동을 시작한 이래 응화심



휴명 정사

인당 주교, 유가심 인당 주교, 해원심 인당 주교를 거쳐 97년부터 현재까지 신직심인당 주교 겸 대천교구정장으로 있다. 또한 진각종 교육원 교 육부장, 통리원 재무부장, 교육원 교법부장, 종인 사서실장을 역임하고 89년부터 7, 8, 9, 10, 11대 종회의 의원, 89년 제10대 종회의 의장, 97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 2002년 31대 사감원장을 지내는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제2회 대원상 시상식 열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11월 19일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 2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종립(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스님과 김연호(제천 진주 등불명원장) 씨 등을 비롯해 수상자들과 축하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동산반야회 창립 22주년 기념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창립 22주년 기념법회 및 ‘동산불교한마당’을 11월 13일 동산불교회관에서 개최했다. 육부처님 집안법회와 미술전, 바자회 등을 겸한 이날, 학장 무진장 스님을 비롯해 붓다클럽 안동일 총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범국민직지회 명예총재 추대

박병선 박사



‘직지심체요절’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임을 밝혀내는데 공헌한 박병선 박사가 11월 15일 직지 찾기 모임인 범국민직지회(회장 박종일)의 명예총재로 추대됐다.
박병선 박사(사진)는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대 사범대를 나온 후 55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직지와 외규장각 도서 찾기에 고집함으로써 세계 인쇄사의 역사를 뒤바꿔놓았다.

22회 불교아동문학상 수상

동시작가 최만조 씨



원로 동시작가 최만조(70·사진) 씨가 제22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1988년 부산불교문인협회를 창립하는 데 앞장 선 최 씨는 95년 부산아동문학인협회 회장, 98년 부산사하문인협회 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99년 부산 신촌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했으며 그동안 동시집 <슬속 아이들> <농악소리> <아파트에 내리는 비> 등을 통해 서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동시를 발표해 왔다. 시상식은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유심’ 신인문학상 당선

현대불교 임연태 편집부장



“가장 훌륭한 시인은 바로 부처님이지요.”
본지 임연태 편집부장(사진)이 2004 유심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묵연을 회상한 감각으로 묘사한 ‘묵연’을 비롯한 5편.
심사를 맡은 오세창 시인(서울대 교수)은 “사물을 통해 인생론적 진실을 깊이 있게 통찰한 ‘일주문’과 ‘배롱나무 속 소나무’ 등의 시가 특히 눈길을 끈다”며 “우리 시단의 좋은 재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1989년 불교계 언론사에 발을 들인 후 시업(詩業)과 생업을 병행하며 시심(詩心)을 키워왔다. 가끔 아침 일찍 출근해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어록을 즐겨 읽는다는 그는 “시의 최종지향점이 부처님 가르침과 닿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교시라고 생각한다”며 “김동만 주는 시가 아닌, 깨우침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시를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형상에 붙어있지 않고 대 자연에 감춰진 부처찾아 견성도통하는 법

Advertisement for 'The Secret of Finding the Buddha' (부처찾아 견성도통하는 법) by URSI. Includes text about enlightenment and a QR code.

지구촌에 천지 개혁시대가 오고 있다

Advertisement for 'The Secret of Finding the Buddha' (부처찾아 견성도통하는 법) by URSI. Includes text about global reform and enlightenment.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The Secret of Finding the Buddha' (부처찾아 견성도통하는 법) by URSI. Includes text about free distribution of books and contact information.